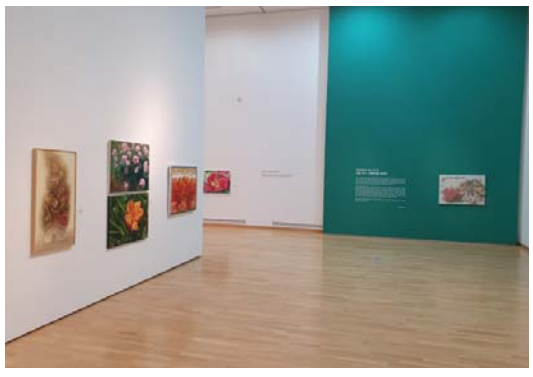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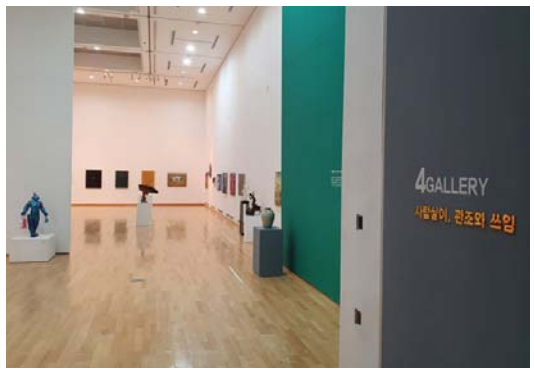
‘지금 여기’… 전북 미술 큰 줄기와 미래를 보다

도립미술관 ‘상생전’ 30일까지
서예 · 추상미술 · 공예 등
전북미술협회 추천 받아
작가 317명 작품 선보여

전북도립미술관은 전북미술협회전 40회 기념 초대 ‘지금 여기, 전북미술 상생전’ 을 연다. 이번 기획전시는 다섯개의 소주제로 나눠 전시장을 구성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4전시실.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은 전북미술협회전 40회 기념 초대 ‘지금 여기, 전북미술 상생전’ 을 연다.

‘지금 여기, 전북미술 상생전’은 전북에서 가장 긴 역사와 상징성을 지닌 전북미술협회 40회 전시를 전북도립미술관에 초대함으로써 전북지역 미술의 큰 줄기와 전망을 포용하고 반영하는 뜻깊은 자리이다.

전북미술협회 추천을 받아 작가 317명을 초대하는 이번 기획전시는 다섯 개의 소주제로 나눠 전시장을 구성하였다.

전체 1~5전시실 별 작품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전시실 ‘묵향으로 만나는 고결한 품격’에서는, 서예와 문자를 주제로 한 작품 27점으로 구성했다.

서예는 점과 선, 획의 굵거나 가는 정도, 붓누름의 강하거나 약함, 붓놀림의 빠르거나 느림, 먹의 짙거나 묽음, 문자의 비례 균형 등이 서예의 주요 요소이다.

이와 더불어, 현대적 캘리그라피, 달항아리의 단아함이 조화를 이루는 작품들이다.

제2전시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에서는 아름다움의 대명사인 꽃을 소재로 한 작품 62점으로 구성했다.

꽃은 색과 향기로 기분 좋은 기운을 내뿜는다. 그래서 즐거움을 나누는 축하의 자리에서, 더러는 슬픔을 위로하는 곳에서도 항상 자리한다. 아름다움의 대명사인 꽃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구성했다. 꽃을 통해 생의 절정, 소중한 기억의 순간을 미술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다.

제3전시실 ‘재현을 넘어 심상으로’에서는 무한한 감정을 자신만의 사유와 결부하여 자유롭게 표출한 추상미술 작품 42점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미술가와 관람객의 심상을 연결하면서 다채로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작품으로 구성했다. 추상미술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무한한 감정을 자신만의 사유와 결부하여 자유롭게 표출한다.

이는 서술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 모호함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인식을 개방한다.

제4전시실 ‘사람살이, 관조와 쓰임’에서는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과 쓰임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공예 작품 59점으로 구성했다.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과 실용성을 탑보한 공예작품으로 구성했다. 미술에 있어서 최고의 주제는 사람이다. 이는 사람살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미술이 녹여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공예는 쓰임과 아름다움이 공존한다. 미와 장식성을 극도로 추구하는 귀족 공예조차도 쓰임을 기반으로 한다. 이때의 쓰임은 도구적 실용성이 아닌 정체성에 가깝다.

제5전시실 ‘산은 높고, 물은 빛난다’에서는 자연에 대한 다양한 태도와 해석, 서정적 감성을 녹여낸 풍경화 작품 127점으로 구성했다.

너른 들과 강, 아름다운 산이 조화를 이룬 전라북도. 이 땅의 미술가는 자연스럽게 자연의 미감을 탐구했다. 자연에 대한 다양한 태도와 해석, 서정적 감성을 녹여낸 풍경화로 구성했다. 이성적인 재현을 넘어 감성이 배어 있는 작품이다. 한편으로, 동양의 산수화는 자연을 표현함과 동시에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화폭에 담는다.

전북도립미술관 관계자는 “전북미술의 현재 상황을 짚어 볼 수 있으며, 미술관과 지역 미술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상생’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가족관람형 ‘익산 문화재야행’ 안전하게 성료

시, 안전 · 편의 향상에 행정력 집중

가족관람형으로 진행된 익산 문화재야행이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체계 준수 하에 안전하게 막을 내렸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사흘 동안 백제왕궁(왕궁리유적) 일원에서 열린 ‘문화재야행’이 전문방역소 운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등 야외행사 방역체계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다.

야외 행사장 방역체계의 첫 시험대에 오른 이번 야행은 5곳에 전문방역소 운영해 전문방역업체가 상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장 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원광대 간호학과 학생들의 방역활동, 체험부스 칸막이 설치, 건강확인 팔찌 미착용자 수시확인 등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이어 안전, 방역요원을 대폭 확대해 행사장 전체적인 질서 유지 및 안전에 대해 세심하게 관리했다. 덕분에 관람객들은 행사장 곳곳에 설치된 포토존과 조용한 음악을 감상하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즐겼다.

이번 야행은 ‘2020 금마저 백제왕궁을 누리다’를 주제로 43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장마의 영향으로 개막식과 일부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을 실내에서 진행하는 등 축소 운영됐으며 시설물을 보강해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정헌율 시장은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체계구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행사였다는 평가다”며 “장마로 행사가 축소돼 아쉬움이 남지만 앞으로 추진될 문화재야행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여성의 삶 스크린으로

익산여성영화제, 19~21일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11편 상영

여성들의 삶이나 관련 이슈를 소재로 한 영화를 소개하는 2020익산여성영화제가 개최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영화제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리며 여성 관련 이슈를 담은 영화 또는 여성 감독이 제작한 영화가 상영된다. 상영 후에는 감독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영화제는 재미극장에 디지털 상영시스템이 구축된 후 첫 상영되는 영화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센터는 이를 기점으로 시민들에게 예술 및 독립영화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영화제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과 ‘무지개다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농촌이민여성센터, 솜리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익산여성의전화, 익산YWCA, 평화바람, 한국문해교육협회 익산지부 등이 기획단으로 참여하여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영화제는 장편 8편, 단편 3편 등 총 11개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오는 19일 첫 상영작은 모녀의 독립기를 그려낸 ‘웰컴투X-월드’다. 이어 영페미니스트의 이야기를 담은 ‘우리는 매일매일’, ‘페미당당’이 만들어가는 페미니즘 정치 ‘해일 앞에서’가 상영된다.

둘째 날인 20일은 유학생 부부의 결혼생활을 담아내고 있는 ‘박강아름 결혼하다’로 시작된다. 이어 10대들의 성장 이야기를 다룬 ‘영하의 바람’과 마지막으로 ‘톰보이’가 상영된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처음으로 해외 여성감독 섹션을 구성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영화제 마지막 날인 21일은 세월호 참사 5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당신의 사월’과 죽음 앞에서 인간의 욕망을 마주하는 ‘욕창’이 이어진다. 영화제 마지막 시간은 익산 여성감독들이 공공영상미디어센터의 지원을 통해 제작한 3개의 단편작 ‘BAD’, ‘집으로 가는 길’, ‘악취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가 차례로 상영된다.

올해도 팟캐스트에서 2020익산여성영화제를 만날 수 있다. 영화제 기획단이 참여한 팟캐스트에서는 상영작 중 두 편인 ‘웰컴투X-월드’와 ‘영하의 바람’을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영화에 대한 소개와 소감, 인상적인 장면, 감독에게 궁금한 점 등을 들을 수 있다. 팟빵이나 팟캐스트에서 ‘익산 재미 in 라디오’를 검색하면 청취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한 차례 연기된 2020익산여성영화제는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기반으로 실시된다. 센터 입구에서 발열 체크가 이루어지며 마스크 미착용자는 입장이 제한된다. 또한 거리 두기로 좌석이 제한됨에 따라 사전 및 현장에서 선착순 좌석 번호표가 배부된다.

영화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www.ismedia.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70-8282-8072)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